

Key Word

Seongyogyeomsu(禪教兼修), education process(履歷課程), Buddhist lecture(講學), lecture hall(講院), Baekyang temple(白羊寺), Yeondam Yuil(蓮潭 有一), Yangak Gyeseon(羊嶽 啓璇), Baekpa Geungseon(白坡 巨璇), Manam Jongheon(曼庵 宗憲), Hanyeong Jeongho(漢永 鼎鎬)

佛國寺의 毘盧殿과 觀音殿
영역에 관한 타당성 고찰
—伽藍配置의 상호관계성을 중심으로

염중섭(자현)
동국대학교

- I. 서론: 불국사 가람배치의 특수성과 현재의 이해
- II. 비로전의 타당성
 - 1. 비로전의 문제점
 - 2. 대웅전과의 상관관계
- III. 관음전의 타당성
 - 1. 관음전의 필연성
 - 2. 극락전과의 상관관계
- IV. 결론: 화해와 공존의 이상경계

투고일자 2010.4.5 | 심사일자 2010.4.11 | 게재확정일자 2010.4.14

요약문

불국사 가람배치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수성은 대웅전과 극락전 영역에 의한 二重軸線 구조가 실시되어 있다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대웅전 영역의 후면에 毘盧殿과 觀音殿이 回廊을 통해서 각기 독립된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국사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총 300종 이상의 단행본 및 논문 등에 의한 해석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연구접근들 속에서도 비로전과 관음전 영역의 가람배치 상에서의 특수성에 관해서는 심도 있는 접근이 개진된 바가 없다. 이는 비로전과 관음전 영역이 1970~1973년에 걸친 불국사의 복원과 관련되어서, 정확한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불투명에 관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국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문화유산인 동시에 내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사찰이라는 점에서 그 속에 다소간 불투명성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더 이상은 미루어 둘 수가 없다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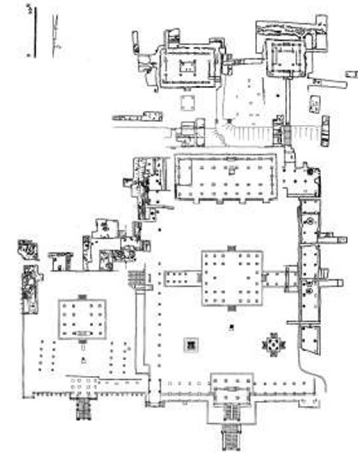
필자는 이 문제의 접근에 있어서 기존에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는, 불국사의 전체적인 가람배치의 정합성을 기초로, 비로전과 관음전 영역에 대한 타당한 해법 도출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불국사가 한꺼번에 가람배치를 일신하는 사찰이라는 점은 불국사 가람배치의 유기적인 측면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사상적인 입각점과 아울러 우리는 각 전각들 간의 相依相資적인 관점의 상호반향에 대해서도 주목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는 비로전과 관음전을 단순히 비로전과 관음전의 이해 도출을 통해서만 파악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전각들이 상관관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웅전 및 극락전과의 관계파악이 필연적으로 요청되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고의 비로전과 관음전 이해에 있어서는 이들에 대한 각각적인 이해와 더불어 네 전각의 관계성에 의한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방법모색만이 우리로 하여금 불국사 가람배치에 대한 보다 타당성 있는 인식을 수립해 볼 수가 있도록 한다고 사료되어지기 때문이다.

주제어

毘盧殿, 觀音殿, 佛國寺, 華嚴, 大雄殿, 極樂殿, 毘盧遮那佛, 觀世音菩薩



『佛國寺-復元工事報告書』, 圖版 150. 發掘平面圖.

I. 서론: 불국사 가람배치의 특수성과 현재적인 이해

불국사 가람배치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수성은 대웅전과 극락전 영역에 의한 이중축선 구조가 실시되어 있다는 것이며,¹⁾ 그 다음으로는 대웅전 영역의 후면에 비로전과 관음전이 회랑을 통해서 각기 독립된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불국사 건축에 있어서의 백미인 화려하고 웅장한 석축과 아름답고 공교로운 석계에 가리기 쉬운 부분이지만, 가람배치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오히려 이러한 측면들 보다도 더욱더 두드러지는 바라고 할 수가 있다.

불국사의 선행연구들에는 이와 같은 특수성에 관한 접근들 역시 살펴진다. 이는 불국사의 전체적인 이해에 있어서 이러한 가람배치가 가지는 비일반적인 측면을 인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은 가람배치의 관점이 아닌 華嚴佛國寺라는 ‘華嚴’과 ‘佛國’이라는²⁾ 양자의 회통과 원융적인 관점에 입각한 화엄사

1) 『圓宗文類』 22, 「華嚴佛國寺阿彌陀佛畫像讚」(『大正藏』 58, 567b), “華嚴寓目瞻蓮藏 佛國馳心係安養”; 繼天 謹書, 『佛國寺事蹟』 全1卷(『佛國寺事蹟』은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佛國寺誌[外]』,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3'를 사용하였다. 이하 표기생략), “十三橋爲四聖六凡聽法往來之階差 則宛同昔日未會靈山終談妙法之儀軌 亦似西方無量壽國分序九品之道場 此非本寺爲名之大義耶”; 廉仲燮, 「佛國寺 伽藍配置의 思想背景 研究」, (서울: 東國大 博士學位論文, 2009), 84~88쪽.

2) ‘화엄불국사’의 이해에 있어서는 ‘화엄불국’을 하나로 보는 측면과 ‘화엄/불국’으로 이해하는 것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를 후자의 ‘화엄/불국’으로 본다. 이와 같은 입론 근거는 불국사와 관련된 崔致遠의 문헌(金相鉉, 「Ⅲ. 불국사의 문헌자료 검토」, 『新羅의 思想과 文化』, 서울: 一志社, 2003, 454~458쪽) 중 『圓宗文類』 권 22(『大正藏』 58, 567b·c; 『韓佛全』 4, 647b·c)에도 수록되어 있어 그의 眞作으로 평

상이나 화엄·밀교적인 관점 등에서의 이해접근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³⁾

본고에서는 이러한 사상적인 관점을 보다 심화하고, 여기에 불국사 가람배치의 전체적인 관계성을 고려하여 상호반향을 통한 이해

가반는 「華嚴佛國寺阿彌陀佛畫像讚」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본문의 偈頌에서 “東海東山有住寺 華嚴佛國爲名號 主人宗親親修置 標題四語有深義 華嚴窟目瞻蓮藏 佛國馳心係安養 欲使魔山平毒嶂 終令苦海無驚浪”이라 하여 華嚴佛國을 언급하고 이를 華嚴과 佛國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이는 題名에 대한 이해와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문의 偈頌에서 “既能安堵仰睥睨 誰謂面牆無感通 景行支公與遠公 存沒皆居佛國中”이라 하여 불국을 화엄과 무관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 이는 최치원의 다른 문장들에서도 살펴지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보충될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렇게 되어야만 특정 宗派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을 자체로 소멸시킬 수가 있게 된다. 특히 이러한 이해를 견지할 경우에 우리는 불국사의 창건 배경과 관련하여 기록되어 있는 華嚴과 法相(최연식, 『釋迦塔 발건 <墨書紙片>의 내용을 통해 본 高麗時代 佛國寺의 현황과 운영』, 『佛國寺 三層石塔 墨書紙片』, 서울: 『財佛敎文化財研究所』, 2009, 66쪽)의 이중적인 문제 역시 자연스럽게 해소시킬 수가 있다고 하겠다.

3) 불국사에 대한 불교사상적인 이해는 한마디로 모든 경우수를 망라한 다양함이다. 그 중 대표적인 측면들을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① 法華: 高裕燮을 시작으로 해서 민영규(閔泳珪, 『佛國寺와 石窟庵』, 『유네스코한국총람』, 서울: 유네스코 韓國總攬編纂委員會, 1957, 493쪽; 閔泳珪, 『石窟庵 彫刻의 敎理背景1』, 『考古美術』 제4호[1960], 參照). ② 華嚴: 김상현(金相鉉, 『石佛寺 및 佛國寺에 表出된 華嚴世界』, 『新羅華嚴思想史 研究』, 서울: 民族社, 1991, 187~218쪽)·강우방(姜友邦, 『佛國寺 建築의 宗教的 象徵構造』,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제18집[1997], 210쪽). ③ 華嚴·密敎: 신현숙(申賢淑, 『慶州 石窟庵과 佛國寺의 思想的 背景1』, 『傳統文化』 제141호[1984], 109~111쪽; 申賢淑, 『慶州 石窟庵과 佛國寺의 思想的 背景2』, 『傳統文化』 제142호[1984], 104~111쪽)·홍윤식(洪潤植, 『新羅社會와 曼荼羅』,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제14집[1993], 171~174쪽)·배진달(裴珍達, 『佛國寺 石塔에 구현된 蓮華藏世界-釋迦塔·多寶塔의 명칭과 관련하여』, 『시각문화의 진통과 해석: 靜齋 金理那 교수 정년 퇴임기념 미술사논문집』, 서울: 예경, 2007, 125~133쪽). ④ 華嚴·密敎·唯識: 고익진(高翊晉, 『華嚴學의 隆盛과 그 影響』, 『韓國古代佛敎思想史』, 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1989, 372쪽)·이만(李萬, 『佛國寺 建立의 思想的 背景』,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제18집[1997], 7~29쪽). ⑤ 法相: 김복순(金福順 著, 『新羅華嚴宗研究-崔致遠의 불교관계지술과 관련하여』, 서울: 民族社, 1990, 45~68쪽). ⑥ 神印: 문명대(文明大, 『石窟庵 佛像彫刻의 研究』, 서울: 東國大 博士學位論文, 1987, 12~13쪽).

를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불국사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총 300종 이상의 단행본 및 논문 등에 의한 해석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⁴⁾ 필자와 같은 경우도 이미 여러 편의 학회논문과 불국사에 관한 최초의 박사논문 및 단행본을 발표한 바 있다.⁵⁾ 그러나 이러한 모든 연구접근들 속에서도 비로전과 관음전 영역의 가람배치 상에서의 특수성에 관해서는 심도 있는 접근이 개진된 바가 없다. 이는 비로전과 관음전 영역이 1970~1973년에 걸친 불국사의 복원⁶⁾과 관련되어서 정확한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불투명에 관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국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문화유산인 동시에 내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사찰이라는 점에서, 그 속에 다소간 불투명성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더 이상은 미루어 둘 수가 없다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즉, 현재와 같이 복원하여 일반에 널리 공개하고 있는 이상 여기에 대한 합리

4) 불국사 관련 자료들은 관점과 범주에 따른 인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2001년까지의 관련 자료들에 관한 측면은 編輯部, 『附錄佛國寺·石窟庵論著目錄』, 『新羅文化』 第19輯(2008), 371~465쪽을 통해서 정리된 내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5) 廉仲燮, 『佛國寺 進入 石造階段의 空間分割的 意味』, 『建築歷史研究』 제16권(2007); 廉仲燮, 『佛國寺 大雄殿 영역의 二重構造에 관한 고찰-華嚴과 法華를 중심으로』, 『宗教研究』 제49집(2007); 廉仲燮, 『佛國寺 '3道 16階段'의 이중구조 고찰-極樂殿 영역과 大雄殿 영역을 중심으로』, 『新羅文化』 제31집(2008); 廉仲燮, 『佛國寺 靑雲橋·白雲橋의 順序 고찰』, 『建築歷史研究』 제57호(2008); 廉仲燮 著, 『佛敎의 宇宙論과 佛國寺에 대한 再照明』, 坡州: 한국학술정보, 2009; 廉仲燮, 『佛國寺 伽藍配置의 思想背景 研究』, (서울: 東國大 博士學位論文, 2009).

6)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編, 『佛國寺-復元工事報告書』, (서울: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76), 參照.

적인 해석의 타당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다. 물론 이러한 해법도 출은 기층에 있어서 불명확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인 오류의 개연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복원하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복원해서 일반에 공개하면서 불교적인 입장을 수립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도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필자는 기존에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는, 불국사의 전체적인 가람배치의 정합성을 기초로, 비로전과 관음전 영역에 대한 타당한 해법 도출을 시도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불국사가 한꺼번에 가람배치를 일신하는 사찰이라는 점은 불국사 가람배치의 유기적인 측면을 분명하게 드러내준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사상적인 입각점과 아울러 우리는 각 전각들 간의 相依相資적인 관점의 상호반향에 대해서도 주목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비로전과 관음전을 단순히 비로전과 관음전의 이해 도출을 통해서만 파악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전각들이 상관관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웅전 및 극락전과의 관계파악이 필연적으로 요청되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비로전과 관음전에 관한 고찰은 대웅전과 극락전까지를 포함한 네 전각 간의 상호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통해서 파악될 때 보다 높은 정합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본고의 비로전과 관음전 이해에 있어서는 이들에 대한 각각적인 이해와 더불어 네 전각의 관계성에 의한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방법모색만이 불국사 가람배치에 대한 보다 타당성 있는 인식을 수립해 볼 수가 있도록 한다고 사료되

어지기 때문이다.

이 중 먼저 비로전의 이해에 있어서는, 불국사가 화엄불국사로써 화엄사상적인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면서도 비로자나불이 별도의 협소한 전각으로 모셔질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화엄사상에 입각하여 대웅전 석가모니불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는 비로전이 대웅전 후면의 서쪽에 치우쳐 존재하는 의미적인 측면에 관한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는 관음전에 대한 모색에, 있어서 관세음보살은 극락정토와도 관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바세계의 補陀洛迦山에도 거주한다는 이중성을 통해서 해법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는 義湘系에서 아미타불⁷⁾을 모심에 좌우협시를 두지 않지만,⁸⁾ 그럼에도 불국사의 가람배치 속에서는 관음전이 독립적으로 설시될 수 있는 측면에 관한 한 이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네 전각을 隱·顯과 體·用관계 속에서 파악하여 서로는 각각의 전각을 통해서 유리되어 있지만, 이는 결코 완전히 분리된 것일 수만은 없는 것이라는 불교의 철학적인 관점

7) 義湘에게 있어서 阿彌陀佛은 華嚴 밖의 阿彌陀佛이 아닌 法身을 배경으로 하는 阿彌陀佛이다. 鄭炳三, 「義湘華嚴思想 研究」, (서울: 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1), 179~189쪽; 申賢淑, 「佛國寺의 伽藍配置와 佛國土觀」, 『佛敎思想』 제28호(1986), 198쪽.

8) 高聽 撰, 〈圓融國師碑銘〉, “是寺者 義相師 遊方西華 傳住智儼 後還而所創也 像殿內唯造阿彌陀佛像 無補處 亦不立影塔 弟子問之 相師曰 師智儼云 一乘阿彌陀 無入涅槃 以十方淨土爲體 無生滅相 故華嚴經入法界品云 或見阿彌陀 觀世音菩薩 灌頂授記者 充滿諸法界 補處補闕也 佛不涅槃 無有闕時 故□□補處 不立影塔 此一乘深旨也 儼師以此傳相師 相師傳法嗣 既于國師”; 이상준·옥선호, 「天燈山 鳳停寺 建築에 관한 研究」, 『東西大學校 論文集』 제2호(1996), 407쪽; 鄭炳三, 「義湘華嚴思想 研究」, (서울: 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1), 179~189쪽.

을 제시해 보았다. 이와 같은 관점은 화엄불국사의 ‘화엄’과 ‘불국’이라는, 각각의 개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인 조화와 완성을 성취하는 측면과 부절이 합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다. 즉, 비로전과 관음전의 보다 정당한 파악을 통해서 우리는 불국사 가람배치에 내재한 완성과 이상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들을 통해서 우리는 불국사의 전체적인 사상배경과 가람배치의 구조 원리에 입각해서 비로전과 관음전 영역에 대한 현존하는 상태에 관한 타당한 해법 도출을 시도해 보게 된다.

II. 비로전의 타당성

1. 비로전의 문제점

비로전은 『화엄경』의 주불인 法身 毘盧遮那佛(60권본에서는 盧舍那佛)을 모신 전각이다. 『화엄경』에서 비로자나불은 蓮華藏世界를 소의처로 하는 붓다의 이데아와 같은 존재이다.

가람배치에 있어서 비로자나불을 주불전의 본존으로 모실 경우 大光明殿이나 大寂光殿이라고 하며, 주불전을 대웅전으로 하고 이의 부속 건물로 모실 경우에는 華嚴殿이나 毘盧殿과 같은 전각 명을 사용한다.

대광명전이라는 전각의 명칭은 비로자나불이 光明遍照나 遍一切處, 혹은 大日遍照와 같은 無邊光의 의미로 번역될 수 있기 때문이

다.⁹⁾ 그리고 대적광전이라는 측면은 법신의 소의처는 진여세계인 常寂光土¹⁰⁾일 수 밖에 없다는 내용적인 관점을 부각한 것이다. 즉, 전자가 비로자나불의 명칭적인 관점을 통해서 전각 명을 설치하고 있다면, 후자는 법신의 내용적인 관점에서 일체처가 깨달음의 정토일 뿐이라는 측면을 현시하여 그 명칭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비로자나불은 『梵網經(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과 같은 경전에서도 주불로 등장(여기에서는 노사나불로 나타남)¹¹⁾하지만, 주로 『화엄경』과 관련되기 때문에 『화엄경』과 관련된 후불탱화가 갖추어지게 되며, 이와 같은 연관성으로 인하여 화엄전이라는 명칭을 얻기도 한다. 특히 화엄전이라고 일컬어질 경우에는 華嚴經變相圖와 같은 『화엄경』의 특정 상황에 대한 탱화를 동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외에 비로전과 같은 경우는 비로자나불을 모셨다는 점을 부각한 전각 명으로, 이는 중국문화권의 避諱적인 측면¹²⁾에 있어서 이와 같이 佛名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는 대체로 전각을 낮추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예는 같은 본존을 모심에 있어서 極樂殿과 彌陀殿, 琉璃寶殿과 藥師殿, 龍華殿과 彌勒殿, 圓通寶殿과 觀音殿 등과 같은 경우를 통해서도 단적인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즉, 본존의 명칭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전각 명은 해당전각을 부속화시킬 때의 폄하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중국문화적인

9) 李道業 著, 『華嚴經思想 研究』, (서울: 民族社, 1998), 48~56쪽; 金苧石 著, 『華嚴經概論』, (서울: 法輪社, 1986), 106~109쪽.

10) 『妙法蓮華經玄義』 7上, (『大正藏』 33, 767a·b).

11)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 上, (『大正藏』 24, 997b·c).

12) 이장우·노장시 著, 『中國文化通論』, (서울: 中文, 2000), 80~81쪽.

배경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불국사에 비로전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국사고금창기』를 통해서 확인되며,¹³⁾ 현존하는 비로전 逆智拳印毘盧遮那佛像(국보 26호/1.66m)의 극락전 아미타불(국보 27호/1.77m)과의 유사한 크기는 비로자나불이 불국사의 주불전이 아닌 부속불전에 모셔졌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¹⁴⁾ 즉, 비로전이라는 전각 명칭과 크기가 작은 비로자나불의 존재는 상호 부절이 합치하는 측면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불국사가 본래 ‘화엄불국사’¹⁵⁾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비로전과 같은 부속적인 전각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 특히 현재 비로전으로 인식되어 복원되어 있는 곳의 위치는 대웅전과 동일축선 상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닌 대웅전 영역의 후면에서 서쪽으로 치우쳐져 존재하고 있다. 이는 대웅전 영역과 비로전 영역의 면적과 건축규모 등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비로전이 대웅전 보다 높은 위계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로전을 대웅전 보다 높게 인식해 볼 수 있는 측면은 유일하게 지형과 관련된 비로전의 위치가 대웅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토함산에 불국사를 지으면서 파생하게

되는 지형적인 제약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가장 높은 지형에 관음전의 위치를 복원해 놓은 것을 통해서도 단적인 인식이 가능한데, 이로 인하여 이를 통한 비로전과 대웅전의 관계설정은 전혀 의미를 확보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겠다. 즉, 어떠한 관점에서든 우리는, 비로전은 불국사 가람배치에 있어서 주불전인 대웅전의 부속 건물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언 듯 보아서는 화엄불국사라는 ‘화엄적인 관점’과 ‘불국사의 가람배치’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불국사의 구조적인 측면은 법신인 비로자나불을, 『법화경』과 같은 사상적인 측면에서만 제한적으로 報身으로 인정될 뿐, 일반적으로는 화신으로 받아들여지는 석가모니불에 비해서 하위에 처하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신과 보신, 그리고 화신의 三身佛을 모시는 경우에 있어서 화신불이 주존이 되는 경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정각자인 붓다(들)에게 있어서 위계를 따진다는 것은 진리의 관점에서는 의의를 확보할 수가 없는 측면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우리는 최소한 불교적인 일반인식에 있어서 법신은 보신이나 화신의 하위에 위계 지워질 수 없다는 인식을 확인해 볼 수는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화엄불국사에 있어서 비로전의 존재는 오히려 부담이 된다고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비로전의 존재가 없다면 대웅전 안의 석가모니불 正覺과 화엄적인 측면을 곧장 연결시켜 이를 해결할 수 있는데 반하여, 비로전이 존재하게 되면서 비로자나불과 석가모니불 간에 위계와 관련된 문제성이 필연적으로 파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13) 活庵東隱 書, 『佛國寺古今創記』全1卷(『佛國寺古今創記』는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佛國寺誌[外]』,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3’를 사용하였다. 이하 표기생략), “毘盧殿 十六間”

14) 崔致遠 撰의「毘盧佛并二菩薩像讚 并序」와「阿彌陀佛像讚 并序」는 『佛國寺史蹟』과 『佛國寺古今創記』, 그리고 『圓宗文類』(1090년경)의 3전적에 공히 나타나 보이는데, 불상과 崔致遠(857~?)의 시대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비로자나불과 아미타불은 불국사에 현존하는 像으로 인식된다.

15) 이는 活庵東隱의 『佛國寺古今創記』나 崔致遠의 불국사 관련 5종 문헌을 통해서 확인되는 바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 종교적인 관점에는 現行하는 측면 이면의 의미적인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며, 불교와 같은 다층적인 문화구조를 확보하고 있는 종교에 있어서 이와 같은 양상은 보다 심오하게 설시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편적으로 비로전과 관련된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되며, 가람배치의 전체적인 안목에서 건축 구조물들의 상징적인 관계성을 통해 이를 파악해야만 하는 필연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불국이라는 관점에서 설시되고 있는 불국사의 복합적인 의미구조에 보다 근접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2. 대웅전과의 상관관계

비로전은 대웅전과 충돌하면서 문제점을 파생하지만, 동시에 대웅전과 관련해서 해법적인 도출이 가능한 면도 있어 주목된다. 이는 관음전과 극락전의 관계를 통해서도 단적인 인식이 가능한데, 이러한 네 전각은 교차된 x자형의 가람배치를 통해서 서로 간에 관계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비로전에 대한 보다 정당한 파악은 관점에 있어서는 화엄사상에 대한 측면에서 풀어야 한다. 화엄사상에 있어서 비로자나불은 연화장세계의 교주인 동시에 法身遍滿의 두루하신 존재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로자나불의 측면은 중생에게 있어서의 이익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취약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연화장세계는 중생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요원하고, 법신변만의 가치는 마치 허공이

없는 곳 없이 두루한 것과 같이, 존재적인 측면 이외의 특수한 공능을 발현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즉, 전자는 너무 멀고 후자는 너무 가까워서 구제를 원하는 중생에게 있어서 특수성을 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다.

비로자나불은 분명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理佛이다.¹⁶⁾ 그러나 이는 중생의 소소한 바람을 들어주는 것과는 논리적인 층차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現行에 있어서의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게 된다. 이는 마치 빛과 대기는 인간존재에 있어서 배경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필연적인 측면이지만, 이를 통해서 중생들이 사적인 소원을 성취할 수는 없는 것과도 같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표면에서 중생을 섭수함에 있어서는 석가모니불이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석가모니불은 法身인 비로자나불과 正覺을 통해서 연결된다.¹⁷⁾ 이는 석가모니불의 □가 비로자나불의 보편성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또한 석가모니불은 개체로서는 역시 석가모니불인 뿐이다. 이는 娑婆教主로서 중생을 섭수하여 제도하는 원력의 行佛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중생의 입장에서 바람을 성취해 주는 대상으로서는 비로자나불보다 석가모니불이 더욱더 유효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즉, 우리는 불국사의 비로자나불과 석가모니불을 理佛과 行佛, 다시 말해서 體와 用의 관계이자, 隱과 顯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16) 李道業 著, 『華嚴經思想 研究』, (서울: 民族社, 1998), 59~61쪽.

17) 『大方廣佛華嚴經』1, 「世主妙嚴品第一之一」(『大正藏』10, 1b); 『大方廣佛華嚴經』1, 「世間淨眼品第一之一」(『大正藏』9, 395a).

사찰은 붓다의 관점에 의한 이상경계가 되어야함과 동시에 중생의 접근에 따른 수용공간이 되어야만 하는 이중적인 면을 가져야 한다.¹⁸⁾ 특히 불국사와 같은 경우는 寺名을 통해서 불국을 지향한다는 점을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불국이라는 의미가 어찌 불·보살만의 불국이겠는가! 의당 이러한 의미에는 중생들도 포함되는 것이다.¹⁹⁾ 이러한 중생들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비로자나불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 보다는 秘佛로 모시는 것이 보다 타당한 측면이 아닌가 한다. 즉, 비로자나불은 드러난 점에 있어서는 부각되지 않으면서 석가모니불을 통해서 중생들을 성취시켜 주는 濫觴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모든 움직임을 주관하는 지도리(道樞)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석가모니불의 작용은 비로자나불의 본체에 의지하는 고로 언제나 진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끊임이 없을 수가 있고, 비로자나불은 석가모니불의 작용에 의지하여 중생들을 버려두지 않는 妙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양자의 동시성취 구조야말로 불국사의 가람배치에서 모두가 각각으로 조화를 이루는 화엄의 妙理²⁰⁾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즉, 비로자나불과 석가모니불은 양자가 서

로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不離·不離의 관계성 속에서 진리와 중생이라는 서로의 관점에서 서로를 이루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닌 개별적인 완성을 통해서 보다 고차원적인 경지경계를 顯現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이야말로 진정한 불국이며, 화엄의 완성적인 가치라고 할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이해의 도출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화엄불국’의 보다 진정한 의미적인 상징성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게 된다.

물론 석가모니불과 비로자나불을 대웅전과 비로전으로 모시는 양상은 다른 사원구조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가람배치에 있어서 극락전과 관음전, 그리고 대웅전과 비로전을 x자형으로 교차하여 의미적인 상징성을 나타내는 경우는 불국사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불국사의 비로자나불상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비로자나불의 手印인 智拳印과는 다른 逆智拳印을 취하고 있다. 이는 불국사의 비로자나불이 현현하는 의미에 치중되기 보다는 본체의 관점에서 隱의 입장을 함유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 주목된다.²¹⁾

불국사의 가람배치에서 나타나 보이는 ‘네 전각의 x자형 배치’나, ‘비로전의 대웅전 서측으로의 치우친 후면배치’, 그리고 ‘화엄불국이라는 특이한 사명’과 ‘逆智拳印의 수인에서 나타나 보이는 특수성’들은 공히 필자의 해법적인 도출 이외의 타당한 설명방식을 제시하기

18) 廉仲燮, 「佛國寺 大雄殿 영역의 二重構造에 관한 고찰-華嚴과 法華를 중심으로」, 『宗教研究』 제49집(2007), 195~196쪽; 廉仲燮, 「佛敎宇宙論과 寺院構造의 關係性 고찰」, 『建築歷史研究』 제56호(2008), 82쪽.

19) 廉仲燮, 「佛國寺 大雄殿 영역의 二重構造에 관한 고찰-華嚴과 法華를 중심으로」, 『宗教研究』 제49집(2007), 177~180쪽.

20) 가르마 C. C. 츠양 著, 이찬수 譯, 『華嚴哲學』, (서울: 經書院, 1998), 58~79쪽; 慧潤, 釋元旭 譯, 「華嚴法界觀法の 구조와 특징」, 『華嚴思想論』, (서울: 雲住社, 1990), 293~306쪽.

21) 逆智拳印과 관련된 이해의 1차적인 측면은 인도문화의 右手 중심 문화가 중국문화권의 左手 중심 문화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국사와 같은 경우는 毘盧殿의 위치와 관련된 주변 조건들의 상호반향 속에서 2차적인 종교적 상징에 의한 재해석도 가능한 면이 있다.

어렵게 한다. 더구나 불국사는 주지하다시피, 시대적인 층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증축된 사찰이 아닌 통일신라 최대의 계획사찰에 다름 아니다.

또한 불국사 진입석계 등을 통해서 우리는 불국사의 가람배치가 결코 단순한 사원건축의 의미를 넘어서는 불교의 우주론에 입각한 치밀한 내포의미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 볼 수가 있다.²²⁾ 그러므로 비로전과 대웅전의 이중구조에 있어서도 우리는 보다 깊은 모색을 해보아야만 하며, 이의 정당성은 불국사 가람배치의 특수성과 화엄사상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고찰되었을 때 가장 큰 타당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하겠다.

III. 관음전의 타당성

1. 관음전의 필연성

불국사의 관음전은 대웅전 영역의 후면에 비로전과 연하여 동쪽으로 위치해 있다. 이곳은 불국사의 지형상 가장 높은 곳인 동시에 후미진 곳이다. 이곳에 관음전이 회랑을 두르고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관음전이 대웅전 영역의 후면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가람배치에 있어서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관음전이 각 불

22) 廉仲燮, 「佛國寺 伽藍配置의 思想背景 研究」, (서울: 東國大 博士學位論文, 2009), 參照.

전들의 위계문제와도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도 역시 일반적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관음전의 위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관세음보살의 주처인 補陀洛迦山과 연관해서이다. 이는 의상계에서 아미타불을 모심에 보처를 두지 않는다는 측면을 통해서 그 타당성을 확보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²³⁾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불국사에 있어서는 관세음보살이 극락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관세음보살이 극락정토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관세음보살의 주처는 필연적으로 남섬부주의 補陀洛迦山이 될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補陀洛迦山은 남인도에 위치한 지형으로 추정되는 전면으로는 바다를 마주하고 있고, 후면으로는 산에 의지해 있는 地勢의 海岸(島山)²⁴⁾이다.²⁵⁾ 이로 인하여 모든 관음성지들은 실제로 이와 유사한 구조의 지형지세를 확보하면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동북아 관음성지의 가람배치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양상이다. 바로 불국사 역시 이와 같은 산지에 대한 상징으로, 관음전이 위치해 있는 높은 지형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23) 高聽 撰, 〈圓融國師碑銘〉; 鄭炳三, 「義湘華嚴思想 研究」, (서울: 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1), 179~189쪽.

24) 補陀洛迦山이 海岸인지 海島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바, 여기에서는 양자를 공히 기록해 두고자 한다.

25) 『大方廣佛華嚴經』68, 「入法界品第三十九之九」(『大正藏』10, 366c), “海上有山多聖賢 眾寶所成極清淨 華果樹林皆遍滿 泉流池沼悉具足 勇猛丈夫觀自在 為利眾生住此山 汝應往問諸功德 彼當示汝大方便”; 『大方廣佛華嚴經』16,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大正藏』10, 732c), “海上有山多聖賢”

물론 대웅전 영역이 수미산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²⁶⁾에서 남섬부 주의 補陀洛迦山이 대웅전 영역에 비해서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불교의 우주론 상에서 보면 분명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대웅전 영역의 후면은 비로전의 존재에서와 같이, 대웅전 영역과 연관된 전체적인 수미산 우주론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별도의 상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아야 한다고 할 수가 있다. 즉, 대웅전 영역과 극락전 영역에서의 검토²⁷⁾와는 달리 비로전과 관음전 영역은 동일공간의 연속선상에서 파악되는 것 보다는 논리적인 층차를 달리하는 관점의, 그럼에도 분절되지 않는 관계성 속에서 접근·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관음전이 대웅전 영역에 비해서 높은 위치를 점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또한 관음전 영역은 앞서도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불국사의 가람배치에 있어서 가장 후미진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높이에 의한 위계 상의 문제는 단지 토함산의 지형과 지세를 원용하여 補陀洛迦山을 상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정도로 해석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하겠다.

관세음보살이 남인도의 補陀洛迦山에 상주한다는 경전적인 배경은 『화엄경』의 「入法界品」에 의거한 것이다. 「入法界品」은 「十住品」이나 「十地品」과 더불어 『화엄경』의 성립에 있어서 가장 이

26) 廉仲燮, 「佛國寺 大雄殿 영역의 二重構造에 관한 고찰-華嚴과 法華를 중심으로」, 『宗教研究』 제49집(2007), 參照; 廉仲燮, 「佛國寺 '3道 16階段'의 이중구조 고찰-極樂殿 영역과 大雄殿 영역을 중심으로」, 『新羅文化』 제31집(2008); 「佛國寺 靑雲橋·白雲橋의 順序 고찰」, 『建築歷史研究』 제57호(2008), 參照.
27) 廉仲燮, 「佛國寺 伽藍配置의 思想背景 研究」, (서울: 東國大 博士學位論文, 2009), 141~217쪽.

른 시기의 부분으로 이의 성립장소는 인도라는 것이 정확하다.²⁸⁾ 이는 華嚴大經의 완성이 중앙아시아에서 되었다는 것²⁹⁾과는 다른 것으로 인도적인 내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입법계품」은 인도의 대승불교적인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입법계품」에서 善財童子는 53선지식을 참방하다가 南方을 巡遊하는 과정에서 28번째로 補陀洛迦山의 관세음보살을 만나 가르침을 받게 된다.³⁰⁾ 이로 인하여 관세음보살과 만나게 되는 선재동자를 일명 南巡童子라고도 칭하는 것이다.³¹⁾ 이와 같은 『화엄경』에 입각한 관세음보살의 주처에 대한 관점은 화엄불국사라는 사명 및 비로전과 연해있는 관음전의 가람배치에 있어서의 위치와도 부절이 합치되는 바라고 하겠다. 즉, 불국사 관음전의 가람배치 상의 위치에 입각한 사상적인 배경은 淨土三部經이 아닌 『화엄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海岸孤絶處라는 관세음보살의 주처에 대한 묘사는 인간접근의 어려움을 상징하며,³²⁾ 이는 관음전에 이르는 계단의 가파른 기울

28) 末綱怒一 著, 李箕永 譯, 『華嚴經의 世界』, (서울: 韓國佛敎研究院, 1999), 13~15쪽; 渡邊照宏 著, 金無得 譯, 『經典成立論』, (서울: 經書院, 1993), 168쪽; 李孝杰, 「華嚴經의 成立背景과 構造體系」, (서울: 高麗大 博士學位論文, 1990), 81~85쪽.
29) 海住 著, 『華嚴의 世界』, (서울: 民族社, 1998), 24쪽.
30) 『大方廣佛華嚴經』50, 「入法界品第三十四之七」(『大正藏』9, 717c); 『大方廣佛華嚴經』68, 「入法界品第三十九之九」(『大正藏』10, 366c); 『大方廣佛華嚴經』16,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大正藏』10, 732c).
31) 『新華嚴經論』14, 「如來名號品第七」(『大正藏』36, 814c); 安震湖 編, 『釋門儀範(下篇)』, (서울: 法輪社, 2000), 12쪽.
32) 高麗佛畫의 水月觀音圖에는 공히 善財童子가 찾아가는 補陀洛迦山을 인간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험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補陀洛迦山에 대한 인식을 반영

기와 층계참이 없는 측면을 통해서 상징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즉, 관음전에 이르는 불국사 경내에서 가장 위험한 계단은 접근하기 어려운 관세음보살의 주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화엄경』에 관세음보살의 주처로서 補陀洛迦山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곳이 어느 곳을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입법계품」이 인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補陀洛迦山이 실재하는 聖山의 측면을 수용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종교적인 聖山이 현실의 지리적인 산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³³⁾이기 때문에 양자간의 先行과 後行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³⁴⁾ 즉, 이를 통해서 특정 지역을 補陀洛迦山으로 비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는 관세음보살의 주처로서 대두되는 補陀洛迦山이 결국 「입법계품」의 묘사에 강하게 의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補陀洛迦山이 「입법계품」으로引入되게 되는 것은 실재하는 산과 관련된 것이지만, 이와 같은 측면이 종교적으로 전화되면서는 결국

종교적인 관점이 보다 중요해지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음성지가 공히 전면으로는 바다를, 그리고 후면으로는 산을 등지고 있는 곳 가운데에서 다소 험지와 관련된다는 것을 통해서도 단적인 인식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관세음보살의 주처인 補陀洛迦山과 관련된 측면들은 모두가 『화엄경』과 연관된 것이다. 이는 불국사가 화엄불국사라는 것과 비로전과 연하여 관음전이 배치되어 있는 불국사의 가람배치적인 관점과도 일치되는 것으로 불국사에 있어서 관음전의 존재가 1차적으로 『화엄경』에 입각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라고 하겠다.

그러나 관세음보살은 남섬부주의 補陀洛迦山에 상주해 있는 보살임에도, 이와 동시에 극락정도 아미타불의 左補處이기도 하다.³⁵⁾ 즉, 관세음보살은 우리와 같은 사바세계에 존재하는 동시에 극락정토의 대중이기도 한 것이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관세음보살에 대한 이해가 극락전과 관련해서도 이해되어야 하는 필연적인 이중성을 대두케 한다.

하는 것으로 사료해 볼 수가 있어 주목된다. 菊竹淳一·鄭于澤 編, 『高麗時代の佛畫』, (서울: 時空社, 1996), 150~213쪽; 菊竹淳一·鄭于澤 編, 『高麗時代の佛畫(解說篇)』, (서울: 時空社, 1997), 88~100쪽; 黃壽永 外 編, 『高麗佛畫』, (서울: 中央日報, 1999), 90~114쪽 參照.

33) 이와 같은 측면들에 관해서 우리는 여러 문화권의 宇宙山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廉仲燮, 「Kailas山の 須彌山說에 관한 종합적 고찰」, 『佛敎學研究』 제 17호(2007), 318~319쪽.

34) 『大唐西域記』 10, (『大正藏』 51, 932a), “秣刺耶山東有布呬洛迦山. 山徑危險巖谷欹傾. 山頂有池. 其水澄鏡流出大河. 周流繞山二十匝入南海. 池側有石天宮. 觀自在菩薩往來遊舍. 其有願見菩薩者. 不顧身命. 厲水登山. 忘其艱險. 能達之者蓋亦寡矣. 而山下居人祈心請見. 或作自在天形. 或為塗灰外道. 慰喻其人果遂其願. 從此山東北海畔有城. 是往南海僧伽羅國路. 聞諸土俗曰. 從此入海東南可三千餘里至僧伽羅國(唐言執師子. 非印度之境).”

35) 『悲華經』 3, 「諸菩薩本授記品第四之一」(『大正藏』 3, 185c~186a), “是時世界名曰安樂. 大王成佛號無量壽. 世界莊嚴眾生清淨作正法王. 是佛世尊於無量劫. 作佛事已. … 善男子. 今當字汝為觀世音. 善男子. 汝行菩薩道時. 已有百千無量億那由他眾生得離苦惱. 汝為菩薩時已能大作佛事. 善男子. 無量壽佛般涅槃已. 第二恒河沙等阿僧祇劫後分. 初夜分中正法滅盡. 夜後分中彼土轉名一切珍寶所成就世界. 所有種種莊嚴無量無邊. 安樂世界所不及也. 善男子. 汝於後夜種種莊嚴. 在菩提樹下坐金剛座. 於一念中間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 號遍出一切光明功德山王如來應供正遍知明行足善逝世間解無上士調御丈夫天人師佛世尊. 其佛壽命九十六億那由他百千劫. 般涅槃已正法住世六十三億劫.”; 『觀世音菩薩授記經』 全1卷, (『大正藏』 12, 357a·b); 『佛說觀無量壽佛經』 全1卷, (『大正藏』 12, 344c~345a).

2. 극락전과의 상관관계

동북아 중국문화권의 불교에 있어서 불·보살들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단연 관세음보살이라고 할 수가 있다.³⁶⁾ 이는 오늘날도 중국에서 관세음보살이 도교의 關羽와 더불어 가장 큰 의지처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대웅전에 석가모니 불을 모시고 있음에도 기도를 함에 있어서는 관세음보살에 대한 정근이 가장 보편적인 측면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단적인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관세음보살이 대승불교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이다. 그 첫째는 관세음보살이 현재 우리와 같은 사바세계 안에 현존하고 있기 때문이며,³⁷⁾ 둘째는 千手千眼을 통해서 중생들을 보듬어 안아주는 大聖慈母의 이미지를 형성³⁸⁾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⁹⁾

이 중 첫째와 관련하여, 우리는 먼저 석가모니불과 관세음보살을 비교해서 이해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 석가모니불은 불교의 教祖이

며, 보살보다는 위계가 높은 붓다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석가모니 불은 이미 열반에 들어있는 過去佛일 뿐이다.⁴⁰⁾ 이 점은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석가모니불의 가피가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관점을 부여한다.⁴¹⁾ 이에 반하여 관세음보살은 현재 우리와 같은 사바세계 속에 거주하고 있는 현재적인 존재이다. 이점이 바로 교조인 석가모니불에 비해서 관세음보살이 보다 더 중생들의 의지처가 되는 측면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는 약사여래나 미륵보살과 관세음보살을 비교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 약사여래는 동방의 琉璃光世界에 계시는 他方佛⁴²⁾이며, 미륵불은 兜率天에 거주하고 있는 미래불⁴³⁾이다. 이러한 붓다들은 석가모니불이 과거불인 것과는 달리 현재불, 혹은 보살이다. 그러나 이들이 위치하고 있는 공간은 중생들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와는 공간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이와 같은 거리의 공간적인 측면은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타방이나 天上에 있는 불·보살에 비해서 관세음보살에게 보다 강하게 의지하는 관점을 파생하게 된다고 하겠다.

36) 바이화원 著, 배진달 譯, 『中國寺院 文化紀行』, (서울: 예경, 2001), 122~138쪽.

37) 正覺 著, 『千手經 研究』, (서울: 운주사, 2001), 35~38쪽.

38) 『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經』全1卷, (『大正藏』20, 106c); 正覺 著, 『千手經 研究』, (서울: 운주사, 2001), 39~44쪽; 전재성 著, 『천수다라니와 붓다의 가르침』, (서울: 한국불알리성전협회, 2003), 182쪽; 김호성 著, 『千手經의 秘密』, (서울: 민족사, 2005), 15~17쪽.

39) 『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經』全1卷, (『大正藏』20, 110a), “善男子此觀世音菩薩, 不可思議威神之力, 已於過去無量劫中, 已作佛竟號正法明如來, 大悲願力, 為欲發起一切菩薩, 安樂成熟諸眾生故現作菩薩, 汝等大眾諸菩薩摩訶薩梵釋龍神, 皆應恭敬莫生輕慢, 一切人天常須供養專稱名號, 得無量福滅無量罪, 命終往生阿彌陀佛國.”

40) 『大唐西域記』9, 『摩伽陀國下』(『大正藏』51, 919a) 等 參照.

41) 『法華經』과 같은 대승 관점의 일부는 석가모니의 열반을 방편으로 규정하고, 그 현재성을 부각하려고 노력하는 시도(報身으로의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석가모니는 교조로서의 상징성을 통해서 主佛殿에 모셔지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도 중생의 기원 대상이 되는 것은 관세음보살 등이 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이는 기도와 관련된 ‘정근’ 등을 통해서 단적인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석가모니불의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승에서는 無量壽佛이나 毘盧遮那佛과 같은 무한성의 붓다들을 발원하고 있고, 이러한 사상들이 후대에 서로 融攝되면서도 법화사상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화의 시도는 보편적인 인식확립에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가 있다.

42) 『佛說藥師如來本願經』全1卷, (『大正藏』14, 401b).

43) 『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全1卷, (『大正藏』14, 419b).

실제로 우리나라 불교에서 기도와 관련되어 가장 영험 있는 인물 중 한 분으로 獨聖인 那般尊者를 들 수가 있다. 나반존자는 석가모니 당시에 신통을 부려 영원히 열반하지 못하고 불법을 수호해야 한다는 과제를 부과 받게 된 賓頭盧(梵 Pinḍolabharadvaja)尊者⁴⁴⁾로 인식되는 인물이다. 이는 후일 중국의 도교신앙과 혼합되면서 北極星의 기운이 지구와 同氣化되어 있는 곳인 天台山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위치가 비정되는데,⁴⁵⁾ 이로 인하여 중생들의 바람을 그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이루어 줄 수 있는 배경을 갖추게 된다. 즉, 나반존자 역시 우리와 같은 세계 속에 현존하는 신통이 있는 인물인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나반존자가 중생들의 소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줄 것이라는 불교내의 믿음을 과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나반존자의 신앙과 관련된 측면은 관세음보살이 이 세계 내의 존재로 중생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즉, 중국문화권의 불교에 있어서는 지역적으로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신통이나 자비가 있는 인물이 멀리 위치해 있는 불·보살에 비해서 보다 높은 영향력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44) 『四分律』51, 「雜捷度之一」(『大正藏』22, 946b·c); 『十誦律』37, 「雜誦中調達事之二」(『大正藏』23, 269a·b); 『鼻奈耶』6, 「二不定及三十捨墮法」(『大正藏』24, 877b·c); 『入大乘論』上, (『大正藏』32, 39b); 『佛說彌勒下生經』全1卷, (『大正藏』14, 422b); 『舍利弗問經』全1卷, (『大正藏』24, 902a); 바이화원 著, 배진달 譯, 『中國寺院 文化紀行』, (서울: 예경, 2001), 93쪽.

45) 빈두로존자는 신통을 남용한 대가로 『鼻奈耶』 권6에서는 閻浮提에 머물지 못하는 제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十誦律』 권37에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瞿耶尼에 가서 머물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鼻奈耶』6, 「二不定及三十捨墮法」(『大正藏』24, 877c), “不得住閻浮提.”; 『十誦律』37, 「雜誦中調達事之二」(『大正藏』23, 269b), “不應此閻浮提住. 賓頭盧受佛教已頭面禮佛足右邊還自房. 所受僧臥具床榻. 盡以還僧. 持衣鉢入如是定於閻浮提沒瞿耶尼現.”

다음으로 둘째와 관련해서, 관세음보살이 천수천안을 갖춘 대자비의 존재라는 점이다. 관세음보살이 천수천안을 가졌다는 것은, 중생들을 哀愍하여 관찰 및 攝受하려는 측면과 적극적인 구원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다. 또한 관세음보살은 耳根圓通이라 하여 귀를 통해서 중생들의 고통을 정확하게 간파하는 측면이 있다.⁴⁶⁾ 이는 관음전이 주불전으로 승격될 때 圓通殿이나 圓通寶殿으로 불리우는 근거가 되며, 또한 관세음보살이 圓通大士나 觀世音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는 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불국사와 같은 경우 현재 관음전에 모셔져 있는 존상은, 淨瓶을 든 관세음보살 입상이며, 그 후면에는 천수천안의 탕화가 봉안되어져 있는 형식이다. 물론 이는 불국사 건축 당시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관세음보살에 대한 이해의 한 관점을 충분히 시사 받아 볼 수는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측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관세음보살이 ‘千手라는 自在力’과 ‘天眼이라는 두루 살펴 봄’, 그리고 ‘이근원통이라는 두루 들음’의 3가지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 볼 수가 있게 된다. 또한 관세음보살은 여기에 대자대비의 ‘애민심’을 겸비하고 있다. 이는 관세음보살이 중생들의 가장 큰 의지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즉, 관세음보살에게는 중생들의 문제를 살펴 듣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과 이를 실천하려는 바탕적인 내적의지, 즉 애민심이 공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46)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6, (『大正藏』19, 129c), “佛問圓通我從耳門圓照三昧. 緣心自在因入流相. 得三摩提成就菩提斯為第一. 世尊彼佛如來. 歎我善得圓通法門. 於大會中授記我為觀世音號. 由我觀聽十方圓明. 故觀音名遍十方界.”

이와 같은 관세음보살의 특징은 대승불교의 수많은 불·보살들 중에서도 苦海를 살아가야 하는 중생의 관점에서는 유독 주목되는 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이 바로 중생들이 관세음보살에게 의지하는 이유가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관세음보살은 단순히 사바세계에서 중생들을 보듬어 안아 주는 大聖慈母의 특징만을 가지는 존재는 아니다.⁴⁷⁾ 주지하다시피, 관세음보살과 같은 경우는 극락정토 아미타불의 좌보처이다. 물론 불국사와 같은 경우는 극락전에 보처를 두지 않고 있지만, 이는 보다 근본적인 사상적 측면의 이치적인 관점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지 경전적인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의 보처로 모셔져 있지는 않아도 아미타불의 좌보처가 아닌 것은 아니게 된다.

아미타불은 극락교주이자 무량수불이다. 이는 아미타불이 극락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전개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아미타불과 같은 경우는 아미타불에 독실하게 귀의하는 대상을 임종시에 接引來迎해 줄 수는 있어도⁴⁸⁾ 사바세계의 현실에 대한 구원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이는 아미타불의 특징적인 한계이자, 동시에 관세음보살의 존재적인 필연성이 되는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다.

또한 아미타불이 무량수불이라는 측면은 아미타불의 좌보처가 되는 관세음보살은 성불의 대상이 될 수가 없음을 의미한다. 좌보처라

는 의미는 아미타불이 열반에 들면, 이를 이어서 관세음보살이 붓다가 되어 극락교주가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아미타불과 같은 경우는 無量壽이기 때문에 열반에 들지 않는다.⁴⁹⁾ 이는 관세음보살이 지장보살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성불을 달성하지 않고 중생들을 돕는 闍提菩薩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다.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열반한 대상은 현실과 유리된다는 측면이 존재한다.⁵⁰⁾ 그로 인하여 과거불은 상징성을 가지지만, 중생구제의 실천적인 부분은 부족하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세음보살과 같은 경우는 영원히 열반에 들지 않는 현존하는 현실적인 존재이다. 이는 관세음보살의 애민심과 더불어 관세음보살이 영원한 실천적인 존재가 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의 좌보처이지만, 그 작용력에 있어서는 아미타불과 다른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아미타불이 上品上生에서 中品中生者の 臨終來迎時에 좌우보처가 동반되는 등과 관련하여서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과 분명 함께하는 측면이 있다.⁵¹⁾ 이는 관세음보살이 극락정토의 聖衆임을 분명히 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즉, 관세음보살은 근본에 있어서는 극락정토의 성중

47) 위의 脚註 8) 參照.

48) 『佛說觀無量壽佛經』全1卷, (『大正藏』12, 344c~345c).

49) 아미타불도 열반에 든다는 관점도 있으며(『悲華經』3, 「諸菩薩本授記品第四之一」, 『大正藏』3, 185c~186a ; 『觀世音菩薩授記經』全1卷, 『大正藏』12, 357a·b), 관세음보살은 이미 성불했으나 菩薩身으로 중생을 구제한다는 설(『千光眼觀自在菩薩祕密法經』全1卷, 『大正藏』20, 121a) 등도 있어 다소 일정하지 않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불교의 일반적인 보편론을 취해서 말한 것이다.

50) 이 부분은 涅槃의 작용성과 무작용에 대한 열반의 관점과 연결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테오도르 체르바스키 著, 瑛庵宗瑞 譯, 『涅槃의 概念-緣起와 涅槃의 새로운 概念』, (서울: 經書院, 1993), 143~147쪽.

51) 『佛說觀無量壽佛經』全1卷, (『大正藏』12, 344c~345c).

이지만 그럼에도 아미타불과는 다른 작용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작용력의 가장 큰 장소는 補陀洛迦山이 위치해 있는 사바세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바세계와 관세음보살과의 관계, 그리고 이로 인하여 아미타불이 극락교주로서 사바세계에 제한적인 영향력만을 발휘하는데 반하여 관세음보살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는 불국사의 가람배치에 있어서 극락전 영역이 대웅전 영역과 더불어 이중축선 구조를 형성하면서 전면에 부각되어 있지만, 그 현재적인 작용은 관세음보살에 의지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즉,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은 體와 用の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은 극락정도에 있어서는 각각 顯과 隱의 측면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다. 실제로 극락정도에 있어서 관세음보살의 중생구제력은 크게 작용할 부분이 없다. 왜냐하면, 극락정도는 그 자체로 완비된 세계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의 중생구제력은 극락에서는, 구제라는 대상 자체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극락정도에서는 아미타불이 顯이 되고, 관세음보살은 隱이 된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는 또한 동시에 관세음보살이 사바세계에서 많은 영향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된다. 사바세계는 堪忍苦土로 석가모니불의 표현을 빌리자면, 苦海의 세계에 다름 아니다.⁵²⁾ 그러므로 관세음보살의 구제력은 사바세계에서 찬란한 빛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52) 『別譯雜阿含經』14, 「二八三」(『大正藏』2, 473a); 『大般涅槃經』3, (『大正藏』1, 205a).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바세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의 관계는 극락정도와는 정반대로 아미타불이 隱이 되고, 관세음보살은 顯이 된다고 할 수가 있다. 즉, 극락과 사바라는 이중적인 관점에 있어서 양자의 隱·顯관계는 상호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불국사는 불국정토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體가 되는 극락전이 관음전에 비해서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불국토를 찾는 중생들을 보듬어 안아 주어야 할 대상은 아미타불이라기 보다는 관세음보살이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은 보다 높은 곳에서 중생들의 고통을 보다 빠르게 보고 들어, 신속한 대응을 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불국사 관음전의 높은 위치는 해법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 즉, 화엄사상에 입각해서도 관음전의 높은 위치는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극락정토사상과 관련해서도 관음전의 위치에는 타당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중적인 타당성은 불국사의 가람배치가 치밀한 불교사상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실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관음전과 관련해서는 불국사 진입 연못⁵³⁾과도 상응될 수가 있는 측면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관세음보살의 주처인 補陀洛迦山이 海岸孤絕處라는 인식은 티베트의 布達拉宮(Potala Palace)에서부터 우리나라의 洛山寺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음도량에 물과의 상관 관계를 부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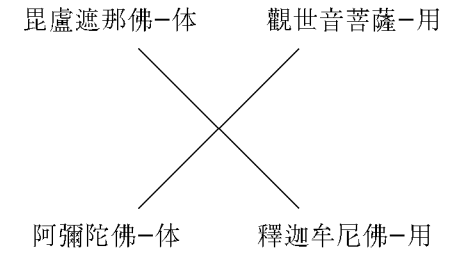
53) 불국사 진입 연못의 이중구조에 관해서는 필자가 「佛國寺 進入 石造階段의 空間分割의 意味」, 『建築歷史研究』 제16권(2007), 58-66쪽에서 정리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불국사의 가람배치에 있어서의 가장 높은 위치와 진입로의 연못이 서로 간에 상응할 수 있는 관점을 확보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관음전이 대웅전 중심의 수미산 우주론⁵⁴⁾에서 비껴나 있는 독립된 공간이라는 필자의 인식과 부절이 합치되는 바라고 하겠다. 즉, 관음전은 수미산 우주론과는 논리적인 층차를 달리하는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공간적으로 대웅전을 뛰어 넘어 진입로의 연못과도 상응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뜻이다. 이는 관음전의 불국사 가람배치 내의 존재적인 타당성에 무게를 실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IV. 결론: 화해와 공존의 이상경계

우리는 비로전에 대한 고찰에 있어서 비로자나불과 석가모니불의 관계를 각각 体·用과 隱·顯의 관계를 통해서 파악해 보았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관점은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살피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이는 대웅전 영역의 후면에 자리한 비로전과 관음전이 극락전과 대웅전에 있어서 X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에 대한 타당한 해석이라고 하겠다.

54) 수미산 우주론과 동북아의 가람배치적인 특수성에 관해서는 필자가 「佛敎宇宙論과 寺院構造의 關係성 고찰」, 『建築歷史研究』 제56호(2008), 71~82쪽을 통해서 정리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차이점은 비로자나불과 석가모니불에 있어서는 비로자나불이 体가 되고 석가모니불이 用이 되는데 반해서,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에 있어서는 아미타불이 体가 되는데 비해서 관세음보살이 用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차이점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문화적인 정당성이라고 할 수가 있다.

중국문화권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심히 경계한다. 그로 인하여 『周易』은 地雷復卦와 地天泰卦에 의미를 두며⁵⁵⁾ 水火未濟卦로 끝을 맺고,⁵⁶⁾ 『老子』에서는 反者道之動을 말하며⁵⁷⁾ 「繫辭傳」에서는 窮·通의 변화를 길한 것⁵⁸⁾으로 놓고 있는 것이다.⁵⁹⁾ 이러한 순화는

55) 程頤 著, 『易傳』, 〈24地雷復〉, “復序卦物不可以終盡剝窮上反下故受之以復物无剝盡之理故剝極則復來陰極則陽生陽剝極於上而復生於下窮上而反下也復所以次剝也”; 『周易』, 〈24地雷復〉, 「彖傳」, “復, 其見天地之心乎?”; 朱熹 著, 『周易本義』, 〈24地雷復〉, “積陰之下一陽復生天地生物之心幾於滅息而至此乃復可見在人則爲靜極而動惡極而善本心幾息而復見之端也”; 程頤 著, 『易傳』, 〈11地天泰〉, “爲卦坤陰在上乾陽居下天地陰陽之氣相交而和則萬物生成故爲通泰”

56) 程頤 著, 『易傳』, 〈64水火未濟〉, “未濟序卦物不可窮也故受之以未濟終焉既濟矣物之窮也物窮而不變則无不已之理易者變易而不窮也故既濟之後受之以未濟而終焉未濟則未窮也未窮則有生生之義爲卦離上坎下火在水上不相爲用故爲未濟”

57) 『老子』, 〈第40章〉.

58) 『周易』, 「繫辭下傳」, “02: 易窮則變, 變則通, 通則久”

59) 馮友蘭 著, 鄭仁在 譯, 『간명한 中國哲學史』, (서울: 螢雪出版社, 2008), 45~46쪽.

리의 문화구조에 있어서 體와 用이 가람배치의 전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불국사에서와 같이 體·用이 상호 교대로 엮여지는 것이야말로 도리어 중국문화권에 있어서의 정당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⁶⁰⁾ 즉, 언 듯 現行해 보이는 모순은 자체로 모순의 경계를 넘어서 있는, 모순의 존재적 양태를 드러내고 있는 또 다른 완성의 가치인 것이다. 이는 마치 완전한 것은 이지러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겠다.⁶¹⁾

또한 이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중국문화권의 또 다른 해법가능성도 확보해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다. 불교의 일반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석가모니불의 대웅전 영역을 이승에서의 삶의 공간으로 규정짓고, 아미타불의 극락전 영역을 사후의 재탄생과 연관시켜 생각해 본다면, 이를 반대적인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문화권에 있어서 삶과 사후는 반대라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다. 이는 살아 있는 사람의 위치 배석시에는 좌가 우에 비해서 우위를 차지하지만, 위패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우가 좌에 비해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나, 절을 할 때의 손의 위치가 반대로 되는 것 등을 통해서도 단적인 확인이 가능한 측면이다. 즉, 비로자나불과 석가모니불, 그리고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사이에서 발생하는 體·用의 순역차이는 곧 문제에 의한 오류가 아닌 중국문화

권의 관점에 입각한 완성을 위한 보다 성숙된 조화의 측면일 수가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해해 보게 된다면, 불국사에서 나타나 보이는 네 전각 영역의 X자형 가람배치는 불교적인 경전적 이해에 중국문화권적인 특성이 반영된 극히 정제된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된다. 바로 이와 같은 원용적인 절제야말로 불국사가 통일신라의 최고 가람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대표가람이 되고, 결국 건축자들의 창건 이상인 불국을 형상화하여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써 굳건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대조화의 위대한 성취가 아닌가 한다.

또한 네 전각 영역은 ‘화엄/불국’ 중 화엄의 가치로 融攝되는 동시에 또한 각각의 개별적인 완성을 성취하여 불국을 완성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먼저 ‘화엄’의 가치와 관련된 네 전각의 측면은, 첫째 대웅전 영역은 석가모니불의 정각성취를 통해서 화엄과 연결되며, 둘째 극락전 영역은 의상계의 화엄적인 관점에서의 아미타불의 이해를 통해서 화엄과 상통한다. 그리고 셋째 비로전 영역은 화엄교주로서의 비로자나불에 대한 본체적인 상징으로써 화엄과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형성하며, 넷째 관음전 영역은 「입법계품」에서의 선재동자와의 조우를 통해서 그 당위성이 인정될 수가 있게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불국사는 의상계 화엄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사찰이기는 하지만, 삼국민의 진정한 아우름을 위한 國刹이라는 점에서 결

60) 불국사 가람배치에 있어서 중국문화적인 측면이 강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佛國寺 靑雲橋·白雲橋의 順序 고찰」(『建築歷史研究』 제57호 [2008], 91-95쪽)에서 『周易』과 五行論 등을 통해서 검토한 바 있다.

61) 『老子』, 〈第45章〉, “大成若缺, 其用不弊, 大盈若沖, 其用不窮, 大直若屈, 大巧若拙, 大辯若訥”

코 화엄종만의 사찰이 될 수는 없다.⁶²⁾ 그로 인하여 네 전각 영역은 ‘불국’ 안에서 각기 차별적인 고유한 경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불국사의 사원구조 안에는 화엄을 통한 사상적인 융합과 불국을 통한 현실적인 완성이 동시에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화엄과 불국의 同時相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화엄의 한계는 그 가치가 원용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가치가 다분히 본체론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은 불국이라는 현실적인 가치를 통해서 극복될 수가 있게 된다. 또한 불국의 현실적인 측면에는 자칫 각각의 개별성이 너무 강조될 개연성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이는 화엄의 철학을 통해서 극복될 수가 있게 된다고 하겠다. 즉, 화엄과 불국의 양자는 동시상성을 통하여 ‘본체의 현실적인 완성’을 성취해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불국사가 화엄불국사로서 통일신라의 국토통일을 넘어선 민족과 불교의 완전한 통일을 지향⁶³⁾하는 동시에 중생구제라는 불교적인 효용성을 가장 잘 발현시키는 측면이라고 하겠다.

62) 佛國寺가 華嚴思想을 주로 하는 國刹로써, 전체적으로는 佛國을 顯示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필자가 「佛國寺 伽藍配置의 思想背景 研究」, (서울: 東國大 博士學位論文, 2009)에서 밝힌 바 있다.

63) 廉仲燮, 「佛國寺 大雄殿 영역의 二重構造에 관한 高찰-華嚴과 法華를 중심으로」, 『宗教研究』 제49집(2007), 177~180쪽.

참고문헌

一原文

- 繼天 謹書, 『佛國寺事蹟』.
- 活庵東隱 書, 『佛國寺古今創記』.
-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佛國寺史蹟」, 『佛國寺誌(外)』,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3.
- 高聽 撰, 〈圓融國師碑銘〉.
- 釋法顯 譯, 『大般涅槃經』, 『大正藏』1.
- 失 譯, 『別譯雜阿含經』, 『大正藏』2.
- 曇無讖 譯, 『悲華經』, 『大正藏』3.
- 佛馱跋陀羅 譯, 『大方廣佛華嚴經』, 『大正藏』9.
- 般若 譯, 『大方廣佛華嚴經』, 『大正藏』10.
- 實叉難陀 譯, 『大方廣佛華嚴經』, 『大正藏』10.
- 曇無竭 譯, 『觀世音菩薩授記經』, 『大正藏』12.
- 量良耶舍 譯, 『佛說觀無量壽佛經』, 『大正藏』12.
- 竺法護 譯, 『佛說彌勒下生經』, 『大正藏』14.
- 達摩笈多 譯, 『佛說藥師如來本願經』, 『大正藏』14.
- 沮渠京聲 譯, 『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 『大正藏』14.
- 般刺蜜帝 譯,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大正藏』19.
- 三昧蘇嚩(二合)羅 譯, 『千光眼觀自在菩薩祕密法經』, 『大正藏』20.
- 伽梵達摩 譯, 『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經』, 『大正藏』20.
- 佛陀耶舍·竺佛念 等譯, 『四分律』, 『大正藏』22.

· 弗若多羅·羅什 譯, 『十誦律』, 『大正藏』23.

· 失 譯, 『舍利弗問經』, 『大正藏』24.

· 竺佛念 譯, 『鼻奈耶』, 『大正藏』24.

· 鳩摩羅什 譯,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 『大正藏』24.

· 堅意 造, 道泰 等譯, 『入大乘論』, 『大正藏』32.

· 天台智者 說, 『妙法蓮華經玄義』, 『大正藏』33.

· 李通玄 撰, 『新華嚴經論』, 『大正藏』36.

· 玄奘 著, 辯機 撰, 『大唐西域記』, 『大正藏』51.

· 義天 編, 『圓宗文類』, 『韓佛全』4.

· 『老子』.

· 『周易』.

· 程頤 著, 『易傳』.

一單行本

· 菊竹淳一·鄭于澤 編, 『高麗時代の佛畫』, 서울: 時空社, 1996.

· 菊竹淳一·鄭于澤 編, 『高麗時代の佛畫(解說篇)』, 서울: 時空社, 1997.

· 金仍石 著, 『華嚴經概論』, 서울: 法輪社, 1986.

· 김호성 著, 『千手經의 秘密』, 서울: 民族社, 2005.

· 安震湖 編, 『釋門儀範(下篇)』, 서울: 法輪社, 2000.

· 廉仲燮 著, 『佛敎의 宇宙論과 佛國寺에 대한 再照明』, 坡州: 한국학술정보, 2009.

· 전재성 著, 『친수다라니와 붓다의 가르침』,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03.

· 正覺 著, 『千手經 研究』, 서울: 운주사, 2001.

· 海住 著, 『華嚴의 世界』, 서울: 民族社, 1998.

· 黃壽永 外 編, 『高麗佛畫』, 서울: 中央日報, 1999.

· 까르마 C. C. 즈앙 著, 이찬수 譯, 『華嚴哲學』, 서울: 經書院, 1998.

· 渡邊照宏 著, 金無得 譯, 『經典成立論』, 서울: 經書院, 1993.

· 末綱怒一 著, 李箕永 譯, 『華嚴經의 世界』, 서울: 韓國佛敎研究院, 1999.

· 마이화원 著, 배진달 譯, 『中國寺院 文化紀行』, 서울: 예경, 2001.

· 이장우·노장시 著, 『中國文化通論』, 서울: 中文, 2000.

· 테오도르 체르바스키 著, 瑛庵宗瑞 譯, 『涅槃의 概念-緣起와 涅槃의 새로운 概念』, 서울: 經書院, 1993.

· 馮友蘭 著, 鄭仁在 譯, 『간명한 中國哲學史』, 서울: 螢雪出版社, 2008.

一論文

· 高翊晉, 「華嚴學의 隆盛과 그 影響」, 『韓國古代佛敎思想史』, 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1989.

· 金福順 著, 『新羅華嚴宗研究-崔致遠의 불교관계지술과 관련하여』, 서울: 民族社, 1990.

· 金相鉉, 「III. 불국사의 문헌자료 검토」, 『新羅의 思想과 文化』, 서울: 一志社, 2003.

· 金相鉉, 「石佛寺 및 佛國寺에 表出된 華嚴世界」, 『新羅華嚴思想史 研究』, 서울: 民族社, 1991.

·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編, 『佛國寺-復元工事報告書』, 서울: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76.

· 閔泳珪, 「佛國寺와 石窟庵」, 『유네스코한국총람』, 서울: 유네스코 韓國總攬編纂委員會, 1957.

- 裴珍達, 「佛國寺 石塔에 구현된 蓮華藏世界-釋迦塔·多寶塔의 명칭과 관련하여」,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 靜齋 金理那 교수 정년퇴임기념 미술사논문집』, 서울: 예경, 2007.
- 李道業 著, 『華嚴經思想 研究』, 서울: 民族社, 1998.
- 최연식, 「釋迦塔 발견 <墨書紙片>의 내용을 통해 본 高麗時代 佛國寺의 현황과 운영」, 『佛國寺 三層石塔 墨書紙片』, 서울: [財]佛敎文化財研究所, 2009.
- 慧潤, 釋元旭 譯, 「華嚴法界觀法の 구조와 특징」, 『華嚴思想論』, 서울: 운주사, 1990.
- 姜友邦, 「佛國寺 建築의 宗教的 象徵構造」,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제18집(1997).
- 閔泳珪, 「石窟庵 彫刻의 敎理背景1」, 『考古美術』 제4호(1960).
- 申賢淑, 「慶州 石窟庵과 佛國寺의 思想的 背景1」, 『傳統文化』 제141호(1984).
- 申賢淑, 「慶州 石窟庵과 佛國寺의 思想的 背景2」, 『傳統文化』 제142호(1984).
- 申賢淑, 「佛國寺의 伽藍配置와 佛國土觀」, 『佛敎思想』 제28호(1986).
- 廉仲燮, 「佛敎宇宙論과 寺院構造의 관계성 고찰」, 『建築歷史研究』 제56호(2008).
- 廉仲燮, 「佛國寺 大雄殿 영역의 二重構造에 관한 고찰-華嚴과 法華를 중심으로」, 『宗敎研究』 제49집(2007).
- 廉仲燮, 「佛國寺 '3道 16階段'의 이중구조 고찰-極樂殿 영역과 大雄殿 영역을 중심으로」, 『新羅文化』 제31집(2008).
- 廉仲燮, 「佛國寺 進入 石造階段의 空間分割의 意味」, 『建築歷史研究』 제

- 16권(2007).
- 廉仲燮, 「佛國寺 靑雲橋·白雲橋의 順序 고찰」, 『建築歷史研究』 제57호(2008).
- 廉仲燮, 「Kailas山의 須彌山說에 관한 종합적 고찰」, 『佛敎學研究』 제17호(2007).
- 李萬, 「佛國寺 建立의 思想的 背景」,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제18집(1997).
- 이상준·옥선호, 「天燈山 鳳停寺 建築에 관한 研究」, 『東西大學校 論文集』 제2호(1996).
- 編輯部, 「[附錄]佛國寺·石窟庵論著目錄」, 『新羅文化』 第19輯(2008).
- 洪潤植, 「新羅社會와 曼荼羅」,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제14집(1993).
- 文明大, 「石窟庵 佛像彫刻의 研究」, 서울: 東國大 博士學位論文, 1987.
- 廉仲燮, 「佛國寺 伽藍配置의 思想背景 研究」, 서울: 東國大 博士學位論文, 2009.
- 李孝杰, 「華嚴經의 成立背景과 構造體系」, 서울: 高麗大 博士學位論文, 1990.
- 鄭炳三, 「義湘華嚴思想 研究」, 서울: 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1.

A Feasibility Study on Birojeon and Gwaneumjeon
Precincts in Bulguksa Temple
—Centering on Correlation of Building Arrangement

Youn, Jung-seop(Jahyun)
Dongguk University

The most peculiar point in the building arrangement of the Bulguksa Temple is the double axial structure by the Main Hall and the Paradise Hall. The next is that the Birojeon and the Gwaneumjeon in the back of the Main Hall create their own precincts in the corridor.

Approximately 300 analyses of the Bulguksa have been published in treatises and books. Despite the proliferation of studies, there have been few deep studies on the special character in the building arrangement of the Birojeon and Gwaneumjeon Precincts. This is because the Birojeon and Gwaneumjeon Precincts are related to the restoration of Bulguksa during 1970~1973, which was accomplished using less than clear judgment, and therefore they inevitably contain the judgment problems in them.

But, as the Bulguksa is a representative world cultural heritage in Korea and the temple that Korean and foreign tourists are visiting most frequently, rational interpretation of the phenom-

enon cannot be ignored even if there are some unclear problems.

Based on the coherent part of the total building arrangement in the Bulguksa, which have already been verified in the approach to this problem, the author tried to draw out a feasible solution on the Birojeon and Gwaneumjeon Precincts.

The Bulguksa is the temple, the building arrangement of which had been restored in a single effort. In this respect, the building arrangement of Bulguksa must have the organic interrelation. Therefore, along with an ideological approach, we have to notice the interaction among the buildings in an interrelative viewpoint.

This means that the Birojeon and the Gwaneumjeon should not be understood only by drawing out their separate meanings but by securing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m. Therefore, in this study on the Birojeon and the Gwaneumjeon, not only their separate meanings but also the interrelation among the four buildings were investigated. This approach was chosen because only this kind of investigation enables us to establish more feasible recognition on the building arrangement in Bulguksa.

Key Word

Birojeon, Gwaneumjeon, Bulguksa, Avatamska, Main Hall, Paradise Hall, Vairocana, Avalokiteshvara

✎ 투고일자 2010.3.25 | 심사일자 2010.4.11 | 게재확정일자 2010.4.14